

자녀사랑하기 4호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알아보기

우리 아이들의 마음건강을 되돌아보는 기회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자녀들의 건강한 신체발달 못지않게 안정적인 정서행동발달 역시 중요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서행동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가 전국의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4월에 실시합니다. 이번 뉴스레터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의 소개와 그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정서·행동특성검사 궁금증 알아보기

1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무엇인가요?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신체검사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정서행동발달을 조기에 평가하고 어려움이 있을 시 신속한 도움을 주고자 학교보건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학교체계 내에서 실시해온 검사입니다. 검사도구는 정서행동문제의 선별에 대한 효과성과 신뢰성이 입증되어 있으며 2013년부터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1학년 학생 (초등학생은 4학년 포함)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 학교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전문기관과 협업체계를 마련하여 정서행동의 어려움을 가진 학생들에게 빠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아이들의 정서행동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2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점수가 높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 일반적으로 전체 아동청소년의 약 5-10%, 즉 100명중 5-10명이 정서행동 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서·행동특성검사는 총점 평균을 바탕으로 기준점을 벗어나는 점수를 '관심군'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관심군이라고 해서 당장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검사가 정서 및 행동 상의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는 검사가 아니기에 점수가 높은 아이들 중에서도 실제로는 문제가 없는 아이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관심범위의 점수는 학생이 현재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타인과의 갈등, 집중력 저하, 기분 저하 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될 시에 우울, 불안, 자살사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학교나 집에서 아이를 관찰해야 할 필요가 있어 '관심군'으로 선정하는 것입니다.
- 정서·행동특성검사의 결과는 학교에서의 평가와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집에서는 관찰다 하더라도 학교에서는 어려움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담임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도움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함께 상의해야 합니다.

3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 대해 자녀와 어떻게 대화를 나누면 좋을까요?

- 검사결과가 정상범위로 나왔을지라도 자녀의 학교생활과 최근의 고민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주세요.
- 예) "00야,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정상적인 정서와 행동 상태로 나왔구나~.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운 고민이 생길 때는 언제라도 엄마(아빠)에게 알려주었으면 좋겠구나."
- 마찬가지로 관심범위에 해당이 되고 외부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담임선생님의 의견이 있다면 조속한 도움을 받아 자녀가 다시 안정적인 정서행동발달을 이루도록 힘써주세요.
- 예) "00야, 그동안 너의 마음에 힘든 점이 있었는데도 엄마(아빠)가 몰라 준 것 같아 미안하구나. 하지만 지금이라도 네가 이렇게 힘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너를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엄마(아빠)도 최선을 다할 게. 학교에서도 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알려 주겠어. 너의 고민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전문적인 검사도 같이 받아보면 어떨겠니?"

4

Wee센터와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 Wee센터는 교육부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공공기관으로 학생들의 정서행동발달 지원을 위한 심층검사 및 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이며,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보건복지부 지방자치행정기관에 설치된 전문기관으로 학생과 성인 전체에 대한 심층 정신건강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Wee센터와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모두 학생들의 정서행동발달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상담 및 관련 검사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학부모님께서는 가까운 곳의 기관을 찾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5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및 상담 등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나요?

- 학교와 전문기관에서 이루어진 검사와 상담 자료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며 학생부와 건강기록부에도 남지 않아 아이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 내 담당 선생님(담임,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등)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학교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건강을 지키고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6년 6월 호남제일고등학교장

본 뉴스레터는 교육부가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에 의뢰하여 제작한 "자녀 사랑하기" 4호이며, 총 11회에 걸쳐 가정으로 보내드립니다.